2011년 1월 8일 토
주2회 발행

佛敎新聞

1960년 1월1일 창간 · 대표전화 (02)730-4488
ibulgyo.com
불기 2555년(단기 4344년) 음력 12월5일 제2686호

불교서적 총판 법우당
불교 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운영 및 개설 상담
☎ 02)994-4437, fax 02)994-4438

민족문화 수호의지 새해에도 계속된다

중앙종무기관, 10일 청계광장서 1080배
성도재일 맞아 전국사찰은 철야정진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주주의 무시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부재를 경책하는 불자들의 움직임이 불기 2555년인 신묘년 새해에도 이어진다. 특히 오는 11일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재일(음력 12월8일)을 맞아 불자들은 전국 각 사찰에서 수행정진하며 민족문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성도재일을 맞아 민족문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첫 걸음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이 1080배 정진으로써 내딛는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부설기관 종무원 250여 명은 성도재일 하루 전날인 오는 10일 오전10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가칭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결사'에 돌입한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종무원들이 성도재일을 맞아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불자의 결연한 의지를 결집하고 대내외에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교전통수행법인 1080배 정진을 통해 민족문화 수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 먼저 참회함으로써 아직도 민족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경종을 울려 참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석이 될 전망이다.

이어 성도재일인 오는 11일 오전 11시에는 조계종 소속 전국 각 사찰에서 일제히 동시법회를 열어 민족문화 수호에 대한 불자들의 의지를 결집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 사찰에 성도재일을 맞아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동시법회를 열 것을 시달하는 종무지침과 함께 이날 법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교문화유산 훼손 실태 등을 담은 15~20분 분량의 동영상과 홍보 소책자, 포스터 등을 배부했다. 또한 사찰의 각종 행사시 정치인의 참여를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일선 사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인의 사찰 행사 참여를 배제하도록 종무지침을 재시달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찰 행사에 철저하게 배제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타 정치인에 대해서는 참석 자제를 권고하되 부득이하게 참석한 경우에는 축사와 내빈석 배정 등 일체의 의전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움직임은 성도재일 이후에도 계속된다. 동안거 해제일이자 정월대보름 바로 다음날인 오는 2월18일 마애보살좌상이 발견된 4대강사업 낙동강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을 한다.

이날 낙단보공사 현장에서의 정진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부설기관 종무원 250여 명 뿐만 아니라 영월 법흥사로 방생법회를 다녀온 조계사 신도 3000여 명이 함께 동참해 불자들의 민족문화 수호와 생명살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정진결사 회향일인 오는 3월23일 또 한차례 1080배 정진을 실시하게 된다.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우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은 "불교는 일개 종교가 아니라 조상대대로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며 내려온 전통문화"라며 "성도재일을 맞아 전통문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불자들의 힘을 결집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불교중흥 누가 이루나? "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1월3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부설기관 종무원들은 시무식 후 올 한해 한국불교와 종단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쳤다. 신재호 기자

"우리 힘으로 불교중흥 성취"

3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시무식

"우리의 힘으로! 불교중흥 이루자!"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시무식에서 종무원들은 이같이 다짐하며 불기 2555년도 종무에 입재했다. 중앙종무기관과 부설기관 종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무식은 기념식에 이어 떡 절단식과 기념촬영 등을 통해 소통과 화합, 변화와 쇄신의 종무를 펼쳐나갈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변화와 쇄신, 상생과 소통의 길을 걸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밤이면 혹독한 추위에 내일 아침이면 둥지를 만든다고 다짐하지만 아침이 되면 따뜻한 햇볕에 다 잊어먹고 또 다시 혹독한 밤을 맞이하는 히말라야에 사는 새인 한고조(寒苦鳥)의 이야기를 통해 새해 소원과 종단 로드맵이 작심삼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서원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불교라는 대발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어 빈민가 어린이가 남의 도움 없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극작가인 베티 스미스의 〈나를 있게 한 모든 것들〉을 소개하며 한국불교의 발전은 정부의 보조금이 아닌 불자들의 십시일반의 보시와 노력으로 일궈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10년, 20년 후를 위한 지금의 노력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애쓴 보람이 훗날 나타날 수 있도록 상생과 소통의 길을 걷기 바란다"고 힘찬 종무의 시작을 당부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포교원장 혜총스님도 새해덕담을 통해 삼보를 외호하며 새로운 한국불교 발전의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이같은 원장 스님들의 당부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을 가득 메운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종무원들은 "우리의 힘으로! 불교중흥 이루자"를 외치며 불기 2555년도 한해동안 소통과 화합, 변화와 쇄신의 종무를 펼쳐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서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에

박연옥氏 '내마음 풍경' 선정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스님)이 주최한 4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에 박연옥 씨의 장식용 중첩 '내마음의 풍경'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장영진·성진아 씨의 '목탁(MokTak)!'과 문무경 씨의 '여여(如如)'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자영 씨의 목탁 USB, 박정연 씨의 '법륜을 돌리다', 권소리·임성진 씨의 '연수', 송보성 씨의 '빛이 울려 퍼지다', 이정미 씨의 '청정한 꿈'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 21명이 특선과 입선을 수상했다.

단장 정만스님은 "올해 총 270 여점이 접수돼 전년에 비해 참가자 수가 20% 증가하는 등 본 공모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상작들은 가공작업을 통해 불교용품이나 불교문화상품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을 수상작 '내마음의 풍경'.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19일부터 26일까지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전시된다.

어현경 기자

社告

신묘년, 불교신문이 더욱 알차집니다

'한장의 불교신문,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모토로 50여 년을 정법홍포에 매진하고 있는 불교신문이 신묘년(辛卯年) 토끼해를 맞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2회 발행하고 있는 불교신문은 토요일자와 수요일자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자에는 신행 수행 교리를 더욱 강화해 독자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료로 보는 한국불교 100년 3면
근·현대의 귀중한 불교자료를 발굴해 매주 연재합니다. 이 코너는 조계종중앙기록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귀중한 불교의 역사를 채록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교기초교리 6면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지면에 초빙해 불교의 기초교리를 알기 쉽게 전합니다. 삼귀의, 삼법인, 12연기 등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불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교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성철 교수의 실천불교 7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가 불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잣대를 제공합니다. 일선에서 불교학을 강의하는 교수로 불교적 세계관, 인생관, 철학관을 불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줍니다.

선사들 이야기 7면
불교만화가 최병용 화백이 선기 넘치는 위트와 기치로 선사들의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선사들의 법거량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최 화백의 만화는 선(禪)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인경스님의 수행에세이 9면
불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 전공교수로 있으면서, 한국명상치료학회 회장 소임을 보고 있는 인경스님이 오랜기간 실참을 통해 체득한 불교의 수행법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인도합니다.

생활속의 불교 11면
우리 일상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 있는 불교의 모습을 조망해 냅니다. 1700여년동안 우리민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불교가 민속과 융합돼 있는 내용도 심도있게 분리해 설명해 냄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와 불교문화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보여줄 것입니다.

천년사찰, 천년의 숲길 12면
천년고찰과 함께 해온 천년의 숲길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갑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사찰에 깃들어 있는 천년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천년의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진 전문기자가 연출해 내는 앵글의 각도도 독자여러분들의 눈을 맑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마음의 경구 14면
일선 사찰에서 포교와 수행하는 스님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불법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스님이 들려주는 경전의 경구는 마음을 밝혀주는 청량한 감로법문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템플스테이의 발견

제1회 템플스테이 논문 공모전

템플스테이는 자연환경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신패러다임 관광문화자원입니다. 이에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템플스테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반,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공모합니다.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템플스테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적 방안을 담은 논문 형식의 글이면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논문주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템플스테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분야 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대중화, 심신치유, 사회적 역할 등)
분야 2. 홍보 및 마케팅(국내외, 온라인 · 오프라인 등)
분야 3. 템플스테이 운영 활성화(수용태세, 제도 · 정책, 인력양성 등)

참가대상 템플스테이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대학(원)생 ※공모는 3인까지 공동참여 가능

작성방법 A4 20매 내외 분량으로 응모작성 요령(홈페이지)을 참고하여 작성
※200자 원고지 100매 분량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1부 및 저작권 동의서(홈페이지), 논문 1부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11. 3. 14(월) ~ 3. 25(금), 기간 중 온라인 접수분에 한해 유효
- 접 수 처 : 동국대학교 아시아연구원 / 온라인(templestay@dongguk.ac.kr)을 통해 제출
- 논문심사 : 2011. 3. 28(월) ~ 4. 15(금)
- 발표 및 시상 : 2011. 4. 25(월) ~ 29(금) (예정)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동국대학교 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상작 발표 및 개별통보

시상내역
- 대 상 : 1편, 상금 500만원
- 우수상 : 2편, 상금 각 200만원(일반, 대학(원)생 각 1편)
- 장려상 : 4편, 상금 각 100만원(일반, 대학(원)생 각 2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 변경

기타사항
- 제출논문 및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논문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한정합니다.
- 공모 논문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바 없어야 하며, 표절이 없어야 합니다.

접수/일정
- 한국불교문화사업단(www.templestay.com)
- 동국대학교 아시아연구원(asia.aspkorea.co.kr)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진흥관 2층 아시아연구원
- 담당자 : 강성배 전임연구원 (054-770-2944)/sbkang@dongguk.ac.kr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관 : 동국대학교 아시아연구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dongguk UNIVERSITY 경주캠퍼스 한국관광공사 ibulgyo.com 佛敎新聞 불교방송 Btn 불교TV